

Patent Troll

특허괴물을 아시나요?

이철희 |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제는 특허로 '직접' 수익을 챙긴다. 특허 자체가 상품이다. 처음부터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발명을 하고 특허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다. 명실공이 지적 '재산' 권이다.

과거에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사용하여 자금을 빌리거나 사업이 위협에 처할 때 경쟁자를 공격하는 한편 경쟁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사 사업을 보호하며, 상대회사와 크로스 라이선싱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해지하였다. 제품을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특허괴물은 차라리 점잖다.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기술표준화에 반영하고 특허괴물에 동참하고 자신의 특허를 표준특허로 등재하여 로열티를 거두는 방법은 특허권자가 라이선시(licensee)와 직접 부딪치지 않는 간접적이면서 품위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대체로 R&D 투자와 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총체적 노력의 산물로 긍정적으로 봐주는 경향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R&D 활동에 대한 투자없이 손쉽게 획득한 특허를 이용하여 자신은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방식이 생겨났다. 상품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세관에서 통관을 막거나 전시회에 출품한 신제품을 압수한다. 당황한 기업으로부터 합의금 또는 로열티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징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는 회사를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 이라고 부른다. 특허 남의 특허를 사거나 빌려서 돈을 쉽게 버니 낱강도로 보일 만도 하고 시샘을 받을 만도 하다. 그러니 특허알바기, 특허사냥꾼, 특허전문소송꾼 등 별 호칭이 다 등장하는 것 같다.

필자도 제목에 쓰기는 했지만 '괴물'이라는 단어가 좀 걸린다. 기술과 혁신의 상징인 특허라는 단어에 웬 괴물이라는 흉칙스런 단어의 조합인가. Troll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요정 혹은 도깨비라고 하는데, 심술쟁이 거인도 있고 장난꾸러기에 친절한 난쟁이도 있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말의 '도깨비'와 비슷한 어감을 갖는 단어가 아닌가 한다. 이 단어는 미국의 Peter Detkin이라는 특허변호사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2001년 TechSearch사의 대리인인 Raymond Niro가 이 회사의 특허를 기초로 Intel사에 특허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인 인텔의 대리인이었던 Detkin은 그 원고회사를 '강탈자(Extortionist)' 라고 비난했고, 이후 Detkin은 원고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에 말려들었으며, 소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roll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지금은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일컬어지는 Intellectual Ventures사의 공동설립자이면서 Vice-Chairman으로 재직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컬하다. Microsoft사의 CTO였다가 IV의 공동설립자 중 한명인 Nathan Myhrvold CEO는 IV를 특허괴물로 분류하고 있는 세간의 평가에 매우 불쾌해하며 IV는 결코 Troll이 아니며 특허를 개발하고 소송을 자제하는 자사의 영업 방식은 기술의 혁신에 기여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한다. 그래서 그런지 IV 홈페이지의 Peter Detkin의 소개란에는 Troll이란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유명한 단어의 명명자임에도 불구하고.

Detkin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실시할 의사가 없으면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고, 인터넷개방사전인 Wikipedia는 '특허괴물은 종종 특허발명을 제조하거나 마케팅할 의도 없이 침해협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특허권을 집행하는 자나 회사를 경멸적으로 일컫는 용어(Patent troll is a pejorative term used for a person or company that enforces its patents against one or more alleged infringers in a manner considered unduly aggressive or opportunistic, often with no intention to manufacture or market the patented inven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Patent Troll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담스러웠는지 부정적인 의미를 희석하고자,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라는 의미의 Non-Practicing Entity, 특허를 발굴·개발하는 회사라는 의미의 Patent Developing Company 또는 특허를 관리한다는 의미의 Patent Management Company 등의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용어는 비실시특허기업, 특허개발회사 또는 특허관리전문기업 등이 될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Patent Troll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모델(실시는 하지 않고 자체 보유하거나 빌린 특허를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것, 특허제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업계의 현상이자 경향이 되었다는 의미에서)과 그 운영주체를 명명할 마땅한 명칭이 없던 때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은 건 사실이다. TTA